



5월28일
금요일

보도자료

생명의 땅 으뜸진남
Land of Life, Best Jeonnam

실국	농업정책과	과장	손명도	팀장	김송원	☎	286-6230
----	-------	----	-----	----	-----	---	----------

‘강진 연방죽 생태순환 수로 농업시스템’, 제16호 국가중요농업유산 지정 - 불리한 환경여건을 극복한 전통농업 가치 인정 -

전남도는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하는 국가중요농업유산에 「강진 연방죽 생태순환 수로 농업시스템」을 지정했다고 28일 밝혔다.

국가중요농업유산은 오랜 기간 동안 농경행위로 형성된 전통적인 농업 활동, 시스템 및 경관 등을 보전·관리하기 위해 농식품부에서 지정한다.

강진 연방죽 생태순환 수로 농업시스템은 예전부터 농경지는 넓지만 물이 부족한 강진군 일대의 자연환경을 극복하기 위해 연방죽(물 저장·공급 등의 기능이 있는 작은 연(蓮) 저수지) 간 물을 서로 교환해 이중·삼중으로 활용하는 방식이다. 현재까지도 이를 이용해 2천209ha 규모의 한들평야에 물을 공급 중이다.

특히 돌과 흙을 이용해 100여개의 보를 만들고 수로를 통해 가정집 생활용수로 먼저 활용한 후 농경지와 병영성 해자로 유입하는 생태순환 수로 시스템은 다른 지역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운 독특한 형태다.

이 시스템은 17세기 네덜란드 동인도회사 선박의 선원이던 하멜이 표류하다 우리나라에 머물던 시기에 강진의 치수 사업에 관여해 만든 것으로 전해진다.

이번 제16호 국가중요농업유산에 지정된 「강진 연방죽 생태순환 수로 농업시스템」은 전국에서 신청한 6개 후보 지역 중 유일하게 선정됐다.

이번 국가중요농업유산 지정에 따라 강진군과 전라남도는 지정서 교부와 함께 3년간 15억 원의 국가보조금을 지원받아 유산자원의 조사 및 복원, 환경정비, 주민교육 등 지속적인 보전관리를 할 수 있게 되었다.

손명도 전라남도 농업정책과장은 “국가중요농업유산 지정으로 강진 연방죽 생태순환 수로 농업시스템의 가치를 인정받게 되어 의의가 크다”면서 “단순히 발굴·보존·유지하는데 그치지 않고 농촌 공동체 유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관광자원으로 적극 활용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국가중요농업유산은 전국 16곳이 지정되어 있으며, 전남은 「완도 청산도 구들장 논(제1호)」, 「구례 산수유 농업(제3호)」, 「담양 대나무 밭 농업(제4호)」, 「보성 계단식 전통차(제11호)」, 「장흥 발효차 청태전(제12호)」, 「강진 연방죽 생태순환 수로 농업시스템(제16호)」까지 총 6개가 포함돼있다.

참고1 국가중요농업유산 지정현황(2021년 5월 기준)

구 분	국가중요농업유산	지 정 일
제1호	완도 청산도 구들장 논	2013. 1.
제2호	제주 흑룡만리 돌담밭	2013. 1.
제3호	구례 산수유 농업	2014. 6.
제4호	담양 대나무 밭	2014. 6.
제5호	금산 인삼농업	2015. 3.
제6호	하동 전통 차농업	2015. 3.
제7호	울진 금강송 산지농업	2016. 12.
제8호	부안 양잠농업	2017. 12.
제9호	울릉도 화산섬 밭농업	2017. 12.
제10호	의성 전통수리 농업시스템	2018. 11.
제11호	보성 계단식 전통차	2018. 11.
제12호	장흥 발효차 청태전	2018. 11.
제13호	완주 생강 전통 농업시스템	2019. 11.
제14호	고성 해안지역 둑방 관개시스템	2019. 11.
제15호	상주 전통꽃감	2019. 11.
제16호	강진 연방죽 생태순환 수로 농업시스템	2021. 5.

참고2 사진(원본파일 첨부)



